

"피해자 되어보니 가해자 용서 어렵더라" 소년원생의 '눈물'

[소년원은 지금]② '회복적 사법'으로 피해자 공감
개별 처우 프로그램...교과·직업교육보다 우선 진행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0-05-16 10:26 송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의 한식조리반/뉴스1 ©News1

"저는 그동안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소년원의 '집단상담'이 한때 죄를 저질렀던 소년들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서울소년원 심리상담 교사 김난영씨(34·여)는 지난 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 인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소년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회복적 사법 처우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을 고려해 범죄 피해를 바로잡는다는 개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서로 알던 사이거나 한 다리만 건너면 알법한 사람이기에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도 이해관계가 있다. 이들 모두 서로 이해·화해가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회복적 사법'의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소년원에서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원생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처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원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피해자가 돼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기도 한다. 편지에는 '피해자가 괜찮다면 사과하고 싶다', '잘 지내고 싶지만 피해자가 눈에 띄지 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등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김난영씨/뉴스1 ©News1

김씨는 "학생들이 역할극에서 피해자를 맡으면 가해자를 용서하기 힘들어한다"며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고 전했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원생들은 과거 자신이 피해를 봤던 경험을 말한다. 김씨는 "과거 가정 학대나 폭행을 당했던 원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자신의 상처받은 모습을 마주하기 어려워한다"며 "원생들이 자신 안에 있는 '피해자성'을 발견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원생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관련 처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을 교육받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원생은 관련 상담도 받는다.

이런 '맞춤형' 개별 처우 프로그램은 소년원의 설립 취지인 '교정'을 목적으로 진행돼 교과·직업교육보다 우선 진행된다.

김씨는 "개별 처우 프로그램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곱씹고 반성하도록 돕는다"며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원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도록 하는데도 제격"이라고 전했다.